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성료

5월 12일~6월 4일 그림책 관련 전시·강연·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에 3만3000여명 참여 성황 이뤄

지난 5월 12일 개막한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지난 4일까지 3주간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시립도서관, 지역서점 일원에서 펼쳐졌으며, 다양한 시선으로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강연·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졌다.

그 결과 올해 그림책도서전에는 연인원 3만3000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지난 3일 팔복예술공장에서 펼쳐진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이수지 작가와의 만남'의 경우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가의 그림책 작업 이야기를 들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서는 이수지 작가 외에도 프랑스의 막스 뒤코프 작가와 일본의 이시카와 에리코 작가가 초청돼 팔복예술공장이っぱ니루에서 그림책 원화 전시를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북미켓 모습

진행했다. 또, 매주 전시 작가들을 직접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됐다. 이 가운데 원화 전시는 '그림책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3명의 작가 원화

100여 점이 전시돼 관람객에게 각기 다른 그림책 스타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매일 4회에 걸쳐 작품 전시해설 및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도 마련돼, 이번 그림책도서전 기간 중 총 1만9000여 명이 관람했다.

또한 △신인 작가들의 원화와 더미북, 드로잉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시작-작가전' △6명 그림책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전주의 시선 그림책전' △그림책 작가 및 출판 관계자를 만나는 강연 △그림책 작가 1인 극장 공연 △체험 프로그램 △북미켓 등에도 1만40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그림책을 보고, 듣고, 체험했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통해 그림책이 어린이들만 보는 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림책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그림책 문화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전주시, 순국선열·호국영령 추모

전주시는 6일 전주군경묘지에서 제68회 현충일을 기념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보훈단체장, 국회의원·도·시의원, 유가족 및 시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약 1분간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하는 것을 시작으로,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의 조총 발사 △진혼곡 △헌화 및 분향 △추모사 △헌시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선열들의 조국 수호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고 빛나는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추념식을 앞두고 군경묘지를 내방하는 유족 및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유족 쉼터를 조성했으며,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전주시 보훈수당화 및 분향 △추모사 △헌시낭독 등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할매, 전라감영을 거닐다'

7월 5일까지 10개 성인문해교육기관서 전주형 문해교육 운영

전주시는 (재)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전북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각 시·군이 다양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시는 지난해 '나의 인생을 꽃 피우는 전주 인문학'에 이어 올해도 공모에 선정돼 전주시역 10개 성인문해교육기관에서 전주의 특색에 맞는 문해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할매, 전라감영을 거닐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라감영

연계 성인문해교육으로, 성인문해학습자들은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를 습득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인문학활동을 각 기관에 파견하여 그림책, 영상 등 다양한 자료로 전라감영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알아보는 '전라감영 길라잡이 수업' △문화예술 전문가가 학습자와 함께 보호수 역사를 만드는 '전라감영 보호수 이야기 수업' △학습자들이 전라감영에 직접 방문해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라감영 체험학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할매, 전라감영을 거닐다' 프로그램이 강의형 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융합한 문해교육인 만큼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지역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인숙 전주시평생학습관장은 "교육은 전주의 문화유산과 한글 교육을 접목한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인문해 학습자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간병비 부담 해결 위한 간병 급여화 시급"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

의료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서는 간병비문제·불법의료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앞 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간병실직, 간병파산, 간병살인 등의 문제는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월 400만원이 넘는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간병 급여화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이다.

또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지역별 의료별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 제공의 기본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의료공백을 만들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의료재난 시기에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생명을 살려낸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이 입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도 끊겨 적자 발생으로 일부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의 임금체불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기간을 대폭 늘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강화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 말까지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한 데다, 기상청도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예고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

다. 또,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13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해 올 여름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5248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열압·혈당 등 기초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 등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안내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독거노인 중심으로 인건 내의와 양산을 지원하고, 보건소 누리집에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게재하는 등 여름철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호국영령 넋 위로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했다.

이기동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전주군경묘지를 찾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념하고,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발전하는

전주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받들어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